

【연구노트】

한국의 국어교육학의 제도적 측면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윤형인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학교교육고도화전공 학교개발정책코스 박사과정 수료

개요 : 국어교육학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학문의 정체성이나 정립유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는 학부의 국어교육과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의 제도적인 측면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치 상황, 교육목표, 교과교육학 관련 강의의 비율,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의 비율의 변화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어교육과는 그 설치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연구자 양성을 교육목표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커리큘럼상의 교과교육학 관련 수업이나 국어교육 전공 교수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국어교육과가 꾸준한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키워드 : 한국의 국어교육학, 한국의 국어교육과, 교과교육학

Study on development process of institutional aspects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Hyoungin YOON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bstract: *The identity problems in education of subject exist beyond countries and are being debated in Korea as well. Especially in the case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many academics pointing out that it hasn't been established as academic discipline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changes in installation, educational goal, ratio of subjects related to education of subject, and ratio of professors major education of subject. The number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and the number of universit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has increased recently. In the educational goal,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universities that have listed researcher training as one of the educational goals, which is necessarily needed when considering academic development of education of subject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ratio of education of subject classes and professors major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has been increasing.*

Keywords: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the Department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of subject*

교과교육학에서 학문의 정체성 문제는 나라를 떠나서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한국의 국어교육학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학문으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지가 어려운 상황인 동시에, 국어국문학 연구에 비해 국어교육학의 연구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어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도 적고, 학술지도 국어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논문을 주로 게재하고 있는 것은 1 지 뿐으로 매우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¹. 하지만 그 후의 연구를 보면, 여러 요인에 의한 커리큘럼 구성 및 교수 구성 등이 정비되어 학문으로서의 국어교육학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고 그 지위가 확립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².

그러나 한편으로,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국어교육학을 국문학과 국어학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 방법을 익히면 가능한 학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³. 이러한 지적이나 비판은 근년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다른 논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어교육학에 대한 인식의 ‘호전’이라는 견해가 일부 국어교육학자의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학문의 발전과정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내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틀이 되는 제도적인 부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어교육과의 정립과정의 제도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춘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 국어교육과의 변천 과정 및 현상을 제도적인 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국어교육과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교육학의 정립과정에 대한 하나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국어교육과의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여타 주요과목의 제도적인 부분을 정리한 논문 등⁴을 참고로 하여, 학과 설치 상황 및 설치 연도, 커리큘럼 구성 및 담당교수의 전공분야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 커리큘럼의 비교에 있어서는 강의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수업 목표가 국어교육을 위한 것이 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전공 담당 교수 중 국어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의 수의 비율의 추이를 확인한다.

1 설치 상황

2017년의 한국의 국어교육 관련 학과는,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1 진태하, 박경현, 「국어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연구보고』 제 91-1-91호(1991)

2 김성진, 「사범대 국어교육과 미래와 전공 교육 과정」, 『국어교육』 제 139호, 한국어교육학회/국어교육 학회 공동 학술 대회, pp.55-79(2012)

3 이삼형, 「국어교육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 국문학』 제 161집, 국어 국문학회, pp.135-166(2012)

우한용, 「국어교육학 성립의 도정과 전망」 『선청어문』 34 권 0 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31-60(2006) 등

4 진태하, 박경현, 「국어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연구보고』 제 91-1-91호(1991)

권오남, 김아미, 조형미, 「한국 사범 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분석」, 『한국 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 제 51 권 제 3 호, pp.281-300(2012) 등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주대(한국어교육과),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국대, 목원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서원대, 순천대, 신라대, 안동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국어대(한국어교육과),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 등 39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 한국외국어대와 광주대는 국어교육과가 아니라 한국어교육과가 설치되어있는데,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의 경우, 국어교육 전공 과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국어교육과와 마찬가지로 중등 2 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3 급 한국어 교원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광주대학교 한국어교육과의 경우 국어교육 전공이 아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의 명칭을 ‘국어교육과’로 하고 있는 곳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외국어대와 광주대의 한국어교육과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중 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 15 개이다. 공립은 인천대, 그 외의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 총 20 개이다.

위 학과들의 설치연도를 조사하여, 국어교육과의 전신인 사범대학교 국어과가 처음으로 서울대에 설치된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별로 설치된 대학교의 수와 이름을 정리한 것이 표 1 이다. 1960 년대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어교육과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기 이전에 사범대학교 국어과로서 설립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 국어과의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했다.

단, 경남대학교의 경우 1952 년에 설치된 학과가 사범대학교 국문과가 아닌 문학부의 문학과로, 본 연구의 연구기준에서 보았을 때 국어교육과의 전신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어교육과가 된 1972 년을 설치연도로 했다.

표 1 국어교육과의 연대별 설치상황

연대	설치된 대학교
1940 년대	공주대, 경북대, 서울대
1950 년대	없음
1960 년대	강원대, 조선대, 동국대, 상명대
1970 년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부산대, 인하대, 서원대, 목원대, 신라대, 경남대, 고려대, 대구대, 원광대, 한남대, 전주대, 홍익대, 가톨릭관동대
1980 년대	순천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영남대
1990 년대	없음
2000 년대	충남대, 이화여대, 우석대
2010 년대	안동대, 인천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청주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37개 국어교육과 중 2000년대 들어 설치된 것이 8대학교로, 5분의 1 이상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요교과라고 할 수 있는 수학교육과도 2000년대 들어 설치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 위기 등 한국 내의 시대 상황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⁵⁾.

⁵⁾권오남, 김아미, 조형미, 「한국 사범 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분석」, 『한국

그러나 수학교육과는 2010 년대 들어서에는 그 설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어교육과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치 수의 증가를 학문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어렵지만, 국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 교육목표

각 대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안에는 각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졸업 후의 진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과의 교육목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두 대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2020 년의 국어교육과의 교육목표의 내용을 확인 및 분석한다. 각 학교가 공표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교육목표 및 졸업 후의 진로는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교육목표나 학과 개요, 학과 소개 등 교육목표에 준하는 내용을 토대로 했다.

우선, 최초의 국어교육과가 설립되어 1991 년 이전부터 국어 교사 양성과 함께 ‘국어교육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학과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서울대 국어교육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 분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하 ‘한국어교육’) 분야의 교사 및 연구자를 양성하고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국어교육과에서는 이론 연구와 실제 교육을 위해, 국어학과 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접학문의 배경 이론을 토대로 (한)국어 활동 이론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국어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다양한 (한)국어 활동 양상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실제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게 된다.

국어교육과의 졸업생은 주로 일선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나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거나 국어교육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자로서 각 대학교의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외 각종 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서울대 홈페이지 학과개요, 2020) ⁶

우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어교육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으로서 최근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듯이, 학과 안내의 모든 ‘국어’라는 말 앞에 ‘한’을 붙여 학과의 목표가 국어뿐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어교육 분야만을 중심으로 보면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와 함께 연구자 육성에도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 년 요람의 내용도 확인해 본다.

수학 교육학회』 수학 교육 제 51 권 제 3 호, pp.281-300(2012)

⁶ <http://koredu.snu.ac.kr/ko/node/2>

국어교육은 국민교육의 기본이다. 국어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터득하여 올바른 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및 국어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학과의 교육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어학, 문학 등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인 탐구 그리고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교육 훈련한다. 본 학과에서는 국어교육에 뜻을 두고 훌륭한 국어교사로서 교육의 일선에 서고자 하는 학생으로 지조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창작이나 기타 특정한 예술 부문의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을 교수·지도하는 곳이 아니므로, 오로지 이 방면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요구하는 최적격자가 될 수 없다. (서울대학교 요람, 1990)⁷

1990 년의 교육목표가 국어국문학을 전반적으로 탐구하고, 국어교육 이론과 실체를 배우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국어학과 국문학 등의 ‘인접 학문’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기반이 되는 내용을 배운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과교육학의 ‘교과’에 해당하는 학문의 내용을 ‘인접학문’이라고 칭함으로써 교과교육학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1990 년에 비해서 교사뿐 아니라 전문가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연구⁸에서 국어국문학과와 교육목표의 차이가 없어,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했던 한양대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교육은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체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교육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소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국어학과 국문학의 기본이론으로부터 더 심화된 고등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국어기능을 체득함으로써 올바른 언어·문학관을 구비한 유능한 국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행 중등학교의 국어교사의 대다수가 사범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대학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체에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때, 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인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학과의 사명과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⁹(한양대학교 요람, 1990)

한국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교육은 언어의 다양한 기능과 효용을 효율적으로 체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과 전문적 소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기본이론으로부터 심화된 고등이론에 이르기까지 국어국문학은 물론, 국어교과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론적 지식을 교육 현장에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유능한 국어교사의 양성이 가능하다. 중등학교 국어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유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어교과의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학과의 사명과

⁷ 진태하, 박경현, 「국어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연구 보고』 제 91-1-91 호(1991)

⁸ 상동

⁹ 상동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 홈페이지 학과소개, 2020)¹⁰

선행연구에서 ‘국어교육과의 사명과 역할이 일반 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더 나아가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익혀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진술’이며, 또, 국어교육과는 국어국문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이 아닌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¹¹한 ‘국어학과 국문학의 기본이론으로부터 더 심화된 고등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국어기능을 체득’이라는 부분은, 2017 년의 교육목표에서는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국어교육의 기본이론 및 고등이론에 이르기까지 국어국문학과 국어교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국어라는 교과와 특성상 국어국문학과와 내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 이는 적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 년에는 사범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가 많다고 말했지만 2017 년에는 전문가 양성이 급선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국어교육과의 당면 과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일반 대학원 국어교육과도 설치되어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대학교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 교육목표가 적절히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두 학교 모두 1990 년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또 각자의 특징을 보다 명확한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국어교육과의 교육목표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거쳐 각 대학교를 교육목표의 내용별로 분류했다(표 2).

표 2 교육목표에 의한 분류¹²

교육목표의 표현 및 내용	해당 대학교
교사, 행정전문가, 연구직 또는 국어교육전문가 등, 교사양성 이외의 학문전문가 양성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한양대, 상명대, 인천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교사, 한국어교육전문가, 국어교육관련전문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진로와 인재육성을 강조	가톨릭 관동대, 신라대, 공주대, 대구가톨릭대
목적대학인 사범대학교의 설립목표에 맞추어 교원양성 만에 중점을 둠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대구대, 동국대, 목원대, 서원대, 순천대, 안동대, 영남대, 우석대, 원공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홍익대, 전북대, 청주대

교사, 행정가, 연구직 또는 국어교육 전문가 등, 교원 양성 외에도 학문의 전문가

¹⁰ <https://education.hanyang.ac.kr/front/undergraduate/language/class>

¹¹ 진태하, 박경현, 「국어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연구 보고』 제 91-1-91 호(1991:6)

¹² ‘예상 진로’의 경우,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대학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분류의 자료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양성을 내걸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한양대, 상명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 9 개 대학교이다. 실제로 이 9 개 대학교 중 8 대학교에 국어교육에 관련된 모든 학과(학부 국어교육과, 일반대학원 국어교육과 석박사과정, 교육대학원 국어과전공)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대학들이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와, 한국어 활동 전문가, 또는 국어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진로와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학교는 관동대, 신라대, 전북대, 공주대, 대구가톨릭대 등 5 개 대학교였고, 그 외의 대학교는, 목적대학인 사범대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주된 목적은 물론 교원 양성이지만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자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내세우는 대학교가 전체의 4 분의 1 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교과교육학 관련 강좌 비율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개설된 강좌를 국어교육,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한문 포함)로 나누어 분석한 선행 연구의 틀에 따라서 구분하고, 각 강의의 내용과 각 대학교의 구체적인 강의 설명을 확인하여 강의명에 부합하는 강의 내용인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모든 대학교의 자료는 참고 자료 1 로 논문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표 3 교육관련강의비율의 추이¹³

		1991 년	2001 년	2006 년	2012 년
교육관련강의 비율 평균		2. 64%	36. 71%	41. 86%	38. 91%
대학교별 교육관련강의 비율	최대	57%	73%	75%	100%
	최소	0%	15%	16%	21%
	차이	57%	58%	59%	79%

1991 년, 2001 년, 2006 년, 2012 년 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관련 강의 수 및 전체 강의 수와의 비율을 나타낸 위의 표에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육 관련 강의 비율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강의 전체에서 교육 관련 과목 비중의 연도별 평균은, 1991 년에 12. 64%에 불과하던 것이, 2001 년에는 36. 71%, 2006 년에는 41. 86%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2 년은 38. 91%로, 오름세였던 것이 2012 년에 감소한 것은 어떤 원인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분석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교간 교육 관련 과목의 비율을 보면, 1991 년에는 최대 57%, 최소 0%로 차이는 57%에 달했다. 2001 년에도 최대 73%로 최소 15%로 차이는 58%, 2006 년 최대 73%로 최소 16%로 차이는 57%, 2012 년도에 관해서는 최대 100%와 최소 21%로 80%에 가까운 대학교 간 차이가 있다. 어느 해나 그 차이는 크다. 교과목의

¹³김성진(2012)의 자료를 토대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남대, 인천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안동대와 한국외국어대, 우석대 등은 필자 조사(참고자료 1)에서 발췌.

구성이 대학교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 국어교육과의 주요 교과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강의 수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대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필수 과목 등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국어교육 전공 교수 비율

국어교육과 교수 중 국어교육학 전공자가 적어서 국어교육과 전공 과정 구성에 있어서도 국어교육학 강의를 늘리기 어렵고,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의 내용이 국어국문학과와 다르지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¹⁴은 줄곧 있어왔다. 국어교육학 전공 교수의 수가 적은 것이 커리큘럼 구성상의 문제의 원인의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각 대학교의 국어교육학 전공 교수의 비율의 변화를 확인한다. 1991년¹⁵과 2004년의 연구결과¹⁶를 토대로, 2013년 필자가 요람 등 각 대학교가 공표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국어교육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교수들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각 교수들의 출신학과를 분류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다. 교수들 중에는 학부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국어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 학위 중 2 개 이상이 국어교육학인 교수를 국어교육학 전공 교수로 분류했다. 연구 분야가 국어교육이나 문학 교육이 되어 있는 경우, 주요 논문 등을 참고하여 연구 분야를 결정했다. 한편 한국 교원 대학교의 경우 초등교육학의 국어교육 전공 교수는 제외했다. 또한 각 대학교의 명예교수도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예 교수는 각 대학교나 학부의 발전에 크게 관계된 인물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명예교수는 국어국문학 전공자였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학 박사과정의 역사가 짧다는 점 또한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국어교육 전공 교수 비율의 추이¹⁷

		1991년	2003년	2013년
전국 국어교육과 중 국어교육학 전공교수의 비율		5%(178명중 9명)	30%(164명중 49명)	25%(217명중 54명)
대학별 국어교육전공교수의 비율	최대	25%(8명중 2명)	25%(8명중 2명)	100%(2명중 2명)
	최소	0%	0%	0%

상세한 조사 결과는 논문의 맨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했으며 표 4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1년에는 178명의 교수 중, 9명만이

¹⁴ 김성진(2012), 임철성(2004) 등

¹⁵ 전출 진태하 등(1991)

¹⁶ 임철성, 「사대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국어교육학연구』 19 권 19 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91-125(2004)

¹⁷ 2003년 목원대 및 2013년 부산대 제외

국어교육 전공 교수로 전체의 5%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국어교육학 전공 교수가 급증하여 총 교수 164명 중 49명, 30%에 해당했다. 2013년에는 2003년에 비해서 소폭의 감소는 있었지만 총 217명 중 25%에 달하는 54명이 국어교육학을 전공자였다. 이를 통해 1991년에 비하여 20년 후에는 그 인원수와 비율 역시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¹⁸도 지적하고 있듯이, 1986년 서울대 등에 국어교육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수 및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0년 이후에 설치된 7개 국어교육과 교수 수는 26명이고, 그 중 10명이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이다. 이는 전체 평균 약 25%보다 10%이상 높은 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의 설치 학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국어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년의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를 교원양성기관평가와의 영향으로 보는 선행연구도 많은데, 평가 요소와 국어교육과 현황의 연대별 변화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국어교육과의 경우 교원양성기관평가만의 영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¹⁹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점 또한 국어교육과의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간 전공교수 비율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간의 편차는 커리큘럼 구성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각 대학의 공통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5 끝으로

본 연구는 학부의 국어교육과를 대상으로 그 설치 상황, 교육목표, 교과교육학 관련 수업의 비율,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의 비율의 변화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해방 이후 한국의 국어교육학의 제도적인 정립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국어교육과는 그 설치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그 설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설치 수의 증가가 곧 학문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학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교육목표에서도, 장기적인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자 양성을 교육목표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커리큘럼 상의 교과교육학 관련 강의나 국어교육 전공의 교수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커리큘럼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국어교육학 관련 과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공통 이해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교육론’이 많을수록 좋다고는 꼭 말할 수 없다. 그 구성 방법은, 선행연구²⁰의 지적과 같이, 실제 학교 국어 교과서나 수업의 구성 내용에 맞추어 분석될 필요가

¹⁸ 전출 임철성(2004) 등

¹⁹尹鏊仁, 「韓國の教員養成機關評価が師範大學教科教育學科に与えた影響」 『日本教科教育學會誌』 42(2), 日本教科教育學會, pp. 1~11(2019)

²⁰ 전출 김성진(2012) 등

있다. 또 실제로 강의 이름에 걸맞은 교과교육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교과목명이 ‘~교육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처음으로 국어교육학 박사과정이 설치된 것은 1986년 서울대학교이다. 1990년 첫 박사학위가 수여되었고, 2002년 3월까지 50 이상의 국어교육학 박사논문이 발표되었기에²¹ 국어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가 탄생한 지 30년 정도로, 전문 연구자의 수는 아직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어교육학 전공 교수 및 연구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국어교육학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국어교육과가 꾸준한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고 문헌

진태하, 박경현, 「국어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연구 보고』 제 91-1-91호(1991)

김성진, 「사범대 국어교육과 미래와 전공 교육 과정」, 『국어교육』 제 139호, 한국어교육 학회/국어교육 학회 공동 학술 대회, pp.55-79(2012)

임철성, 「사대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국어교육학연구』 19 권 19 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91-125(2004)

김형철, 명형대, 「사범대학 국어과 교육내용의 재구조화」, 『교육 이론과 실제』 제 12 권 3 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93-117(2003)

우한용, 「국어교육학 정립의 도정과 전망」 『선청어문』 34 권 0 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31-60(2006)

이삼형, 「국어교육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제 161집, 국어국문학회, pp.135-166(2012)

권오남, 김아미, 조형미, 「한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분석」, 『한국 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 제 51 권 제 3 호, pp.281-300(2012)

尹瑩仁, 「韓國의 敎員養成機關評價가 師範大學敎科敎育學科に与えた影響」 『日本敎科敎育學會誌』 42(2), 日本敎科敎育學會, pp.1~11(2019)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자료 1. 국어교육과 전체 강의 수에 대한 교육 관련 강의 수의 비율

	1991		2001		2006		2012		교육관련강의 비율(%)			
	교육	계	교육	계	교육	계	교육	계	1991	2001	2006	2012
전남대학교	3	34	8	38	9	35	13	46	9	21	26	45
공주대학교	1	16	6	31	6	33	11	30	6	19	18	37
충북대학교	3	34	5	34	5	32	13	36	9	15	16	36

²¹이삼형, 「국어교육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 국문학』 제 161집, 국어 국문학회, pp.135-166(2012)

경북대학교	1	36	9	37	20	31	23	33	3	24	65	70
전북대학교	6	38	19	33	16	32	16	30	16	58	50	53
순천대학교	4	36	7	35	6	36	10	22	11	20	17	45
경상대학교	16	28	8	17	19	27	18	27	57	67	70	67
강원대학교	3	42	19	40	19	40	13	28	14	48	53	46
제주대학교	0	35	8	34	8	33	10	34	0	24	24	29
한국교원대학교	6	36	9	44	9	44	20	51	17	20	20	39
부산대학교	5	43	9	31	15	41	14	40	12	29	37	35
서울대학교	11	32	16	22	17	24	22	22	34	73	71	100
안동대학교							26	36				72
인천대학교							32	45				71
충남대학교							34	61				55
조선대학교	0	29	10	34	14	40	15	39	0	29	35	38
홍익대학교	1	32	5	34	8	35	11	35	3	15	23	31
인하대학교	9	35	13	40	13	34	23	43	26	33	38	70
한양대학교	1	27	6	26	6	26	6	26	4	23	23	23
서원대학교	0	28	14	35	14	35	16	36	0	40	40	44
동국대학교	5	32	14	27	12	24	12	24	16	52	50	50
가톨릭관동대학교	2	27	10	27	8	26	10	41	7	37	30	24
신라대학교	0	28	18	31	17	30	17	31	0	58	57	55
영남대학교	2	23	7	32	7	29	6	28	9	22	24	21
경남대학교	8	26	11	30	10	25	16	30	31	37	40	53
고려대학교	7	42	9	36	27	36	18	38	17	25	75	47
대구대학교	2	44	21	44	13	30	21	43	5	48	43	49
상명대학교	0	26	4	27	14	27	16	31	0	15	52	52
원광대학교	3	27	21	30	22	32	22	31	11	70	69	71
한남대학교	5	28	15	38	12	36	17	46	18	39	33	37
전주대학교	5	24	18	27	24	33	13	29	19	67	73	45
목원대학교							20	40				50
우석대학교							19	32				59
대구가톨릭대학교							28	44				64
이화여자대학교							15	23				65
평균									12.64	36.71	41.86	38.91

참고자료 2. 국어교육 전공 교수 비율

	1991 년		2003 년		2013 년	
	국어교육학	계	국어교육학	계	국어교육학	계
전남대학교	1	6	1	5	2	6
공주대학교	0	7	0	7	0	7
충북대학교	0	6	0	8	1	8
경북대학교	1	6	0	6	1	7
전북대학교	0	7	0	3	2	6
순천대학교	0	6	0	8	1	9
경상대학교	1	8	1	7	1	7
강원대학교	0	7	0	6	1	6
제주대학교	0	8	0	7	1	6
한국교원대학교	2	8	2	9	2	10
부산대학교	1	8	2	8	자료없음	8
서울대학교	1	7	1	7	1	8
안동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1	2
인천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2	2
충남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0	6
조선대학교	0	8	1	6	4	8
홍익대학교	0	4	1	5	1	5
인하대학교	0	6	1	7	2	8
한양대학교	0	4	1	5	4	6
서원대학교	0	5	1	5	1	5
동국대학교	1	5	1	5	1注	5
가톨릭관동대학교	1	5	1	3	1	5
신라대학교	0	5	1	3	2	5
영남대학교	0	4	1	4	1	6
경남대학교	0	5	1	8	2	10
고려대학교	0	6	1	7	3	8
대구대학교	0	6	0	5	2	5
상명대학교	0	7	0	5	2	8
원광대학교	0	6	1	6	1	6
한남대학교	0	4	0	4	2	6
전주대학교	0	4	0	5	1	4
목원대학교	0	4	자료없음	자료없음	1	3
우석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1	4
대구가톨릭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1	4
계명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2	4
이화여자대학교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설치전	3	4
계	9	178	49	164	54	217